

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지 민

목 차

I . 결산개요	1
1. 재무 현황	1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1
나. 자산·부채·자본의 구성 및 증감	3
2. 손익 현황	11
가. 수입·비용 및 당기순이익 규모	11
나. 수입·비용의 구성	15
다. 당기순손실 처분(안)	17
II . 검토 의견	19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 필요	19
2. 수신료 통합징수 재도입에 따른 수신료 징수실적 제고 필요	32
3. 방송광고 규제완화 기조에 맞춘 방송광고수입 회복 방안 마련 필요 ...	39
4. 제작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판매수입 증대 필요	44
5. 수익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디지털플랫폼 이원화 전략 필요	50

6. 재난방송 인력·예산 감소 및 장비·인프라 노후화 문제	54
7. 2TV채널 장애인방송(수어방송) 편성비율 제고 필요	60
8.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례적 미달 문제	64
9. 임직원 장기근속 포상 점진적 축소 및 정비 필요	69
 [참고자료] KBS 현황	 74

I. 결산개요

1 재무 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 2025년 말 한국방송공사(KBS)의 자산은 1조 887억원, 부채는 5,323억 원, 자본은 5,564억 원임.

<KBS 재무상태(2025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증감률
자 산	자 산 합 계	11,679	10,887	△792	△6.8
	유동자산	2,256	1,885	△371	△16.4
	비유동자산	9,423	9,002	△421	△4.5
부 채 · 자 본	부 채 합 계	5,299	5,323	24	0.5
	유동부채	1,283	1,239	△44	△3.4
	비유동부채	4,016	4,084	72	1.8
	자 본 합 계	6,380	5,564	△816	△12.8
	자본금	2,062	2,062	-	-
	자본조정	-25	-2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6	-88	△334	△135.8
	이익잉여금	4,097	3,615	△482	△11.8

주: 자본금 2,062억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

자료: KBS

- 최근 5년 간 재무상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 부채, 자본은 전반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2024년에 비해 자산과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자본은 5,564억원으로 2024년(6,380억원)보다 816억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5,323억원으로 2024년(5,299억원)보다 24억원 증가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887억원으로 2024년(1조 1,679억원) 대비 792억원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5년) KBS 재무상태 변동 추이표>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부채(A)	5,511	5,773	262	6,290	517	5,774	△516	5,299	△475	5,323	24
자본(B)	7,216	7,768	552	7,662	△106	7,010	△652	6,380	△630	5,564	△816
자산(A+B)	12,727	13,541	814	13,952	411	12,784	△1,168	11,679	△1,105	10,887	△792

자료: KBS

나. 자산·부채·자본 구성 및 증감

(1) 자산의 구성 및 증감

○ 2025년도 말 기준 자산은 1조 887억원으로, 유동자산¹⁾ 1,885억원 (17.3%)과 비유동자산²⁾ 9,002억원(82.7%)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1,807억원과 재고자산 78억원으로 구성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3,967억원, 유형자산 4,629억원, 무형자산 23억원, 기타비유동자산 383억원으로 구성됨.

<자산의 구성비(2024·2025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 자산	당좌자산	2,195	18.8	1,807	16.6	△388	△17.7
	재고자산	61	0.5	78	0.7	17	27.9
	소계	2,256	19.3	1,885	17.3	△371	△16.4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4,035	34.6	3,967	36.4	△68	△1.7
	유형자산	4,909	42.0	4,629	42.5	△280	△5.7
	무형자산	25	0.2	23	0.2	△2	△8.0
	기타	454	3.9	383	3.5	△71	△15.6
	소계	9,423	80.7	9,002	82.7	△421	△4.5
자산 합계		11,679	100.0	10,887	100.0	△792	△6.8

자료: KBS

1) 비교적 단기간(1년 이내)에 자금화(資金化)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됨.

2) 원칙적으로 1년 내 자금화되지 않는 자산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351억원), 매출채권 감소(135억원) 등으로 371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³⁾ 감소(68억원), 유형자산⁴⁾ 감소(280억원) 등으로 421억원이 순감하였음.
- 이에 총자산은 전년 대비 792억원이 감소하였음.

<자산 주요 증감내역(2025년)>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 자산	-선급금 118억원 -채고자산 17억원 -기타당좌자산 4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51억원 -매출채권 135억원 -미수금 10억원 -단기대여금 3억원 -유동이연법인세자산 9억원	△371억원
	총 139억원 증가	총 510억원 감소	
비유동 자산	-장기투자증권 60억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억원 -장기대여금 26억원 -기타투자자산 80억원 -건물·구축물·기계 253억원 -기타유형자산 27억원 -무형자산 2억원 -기타비유동자산 71억원	△421억원
	총 60억원 증가	총 481억원 감소	
계	199억원 증가	991억원 감소	△792억원

자료: KBS

3)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4) 건물·구축물·기계 및 기타 유형자산

- 유동자산은 성격에 따라 당좌자산⁵⁾, 재고자산⁶⁾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⁷⁾, 유형자산⁸⁾, 무형자산⁹⁾, 기타비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유형자산, 투자자산, 당좌자산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유형자산은 4,629억원으로, 자본 투자 축소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80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투자자산은 3,967억원으로 2020년 대비 590억원 증가하였는데, 2025년에 장기투자증권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타 투자자산 가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당좌자산은 1,80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351억원), 매출채권 감소(135억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88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5)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6) 유동자산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7)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타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유휴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8)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기계장치, 구축물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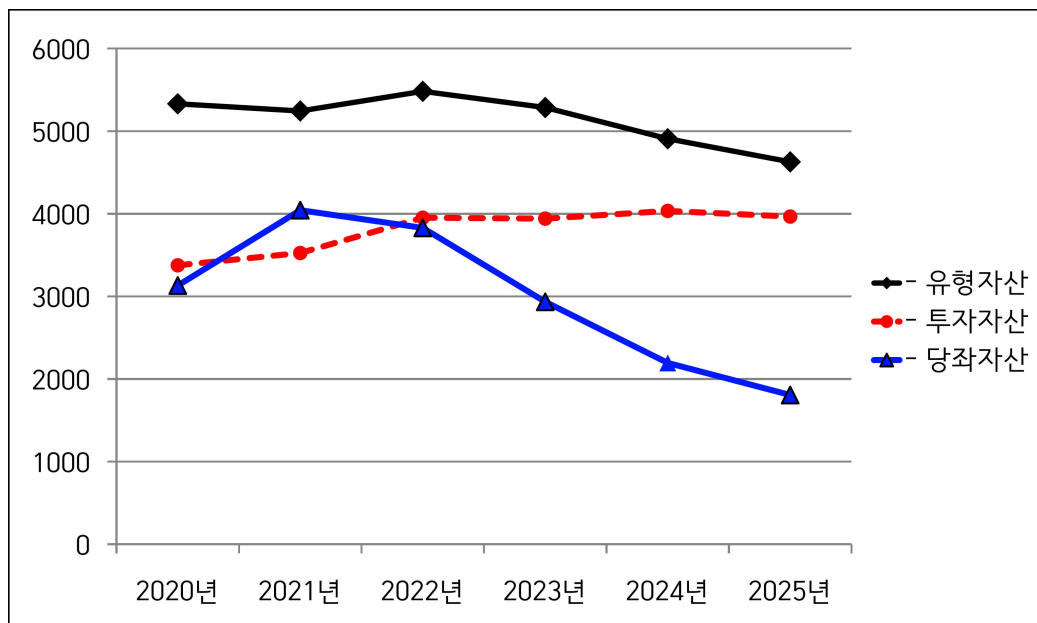
9)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

<최근 6년간(2020~2025년) KBS 유형자산·투자자산·당좌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자산	12,727	13,541	13,952	12,784	11,679	10,887
- 유형자산	5,332	5,245	5,483	5,287	4,909	4,629
- 투자자산	3,377	3,526	3,953	3,942	4,035	3,967
- 당좌자산	3,132	4,044	3,830	2,935	2,195	1,807

자료: KBS



- 참고로 투자자산의 하나인 지분법¹⁰⁾적용투자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KBS가 투자한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등 자회사와 연합뉴스의 총장부금액은 전년 대비 22억원 감소한 3,349억원이고,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567억 8,000만원 발생하였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현황(2024·2025년) >

(단위: 억원)

회 사 명	지분율	2024년 말	2025년 말	증 감
KBS비즈니스	100.0%	220	236	16
KBS미디어	86.2	1,102	1,097	△5
KBS아트비전	100.0%	146	133	△13
e-KBS	100.0%	1,321	1,253	△68
연합뉴스	27.8%	449	492	43
KGCS*	40.0%	50	49	△1
KBS시큐리티	100.0%	71	80	9
wavve Americas	15.2%	12	9	△3
콘텐츠웨이브	1.9%	0	0	-
합 계	-	3,371	3,349	△22

* KGSC는 KBS Global Contents Syndication의 약자로, KBS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의미함.
자료: KBS

10) 자회사(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2025년)>

(단위: 억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KBS비즈니스	328	92	545.4	15.7
KBS미디어	1,657	421	2,220.4	30.6
KBS아트비전	219	86	703.7	△9.5
e-KBS	1,349	96	20.1	△52.7
연합뉴스	2,249	477	1,881.0	188.2
KGCS ¹⁾	124	0	0.0	6.6
KBS시큐리티	08	29	267.6	9.9
wavve Americas	300	241	869.0	△2.2
콘텐츠웨이브	1,682	3,150	2,677.0	△754.4
합 계	7,916	4,592	9,184.2	△567.8

* KGCS는 KBS Global Contents Syndication의 약자로, KBS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의미함.

자료: KBS

(2) 부채·자본의 구성 및 증감

- 2025년도 부채는 5,323억원으로, 유동부채 1,239억원과 비유동부채 4,084억원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자본은 5,564억원으로, 자본금 2,062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억원, 이익잉여금 3,615억원 등으로 구성됨.
-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5년에는 부채가 48.9%, 자본이 51.1%로서, 부채 비중이 2024년 대비 3.5%p 증가하였음.

<부채 및 자본의 구성비(2024·2025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부채	유동부채	1,283	11.0	1,239	11.4	△44	△3.4
	비유동부채	4,016	34.4	4,084	37.5	72	1.7
	소계	5,299	45.4	5,323	48.9	24	0.5
자본	자본금	2,062	17.7	2,062	18.9	-	-
	자본조정	-25	-0.2	-25	-0.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6	2.1	-88	-0.8	△334	△135.8
	이익잉여금	4,097	35.1	3,615	33.2	△482	△11.8
	소계	6,380	54.6	5,561	51.1	△816	△12.8
부채와 자본 합계		11,679	100.0	10,887	100.0	△792	△6.8

자료: KBS

- 부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감소(18억원), 예수금 감소(16억원) 및 선수수익 감소(14억원) 등으로 44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56억원) 등으로 68억원이 순증하였음.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2025년)>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 부채	-매입채무	3억원	-미지급금	18억원	△44억원
	-미지급법인세	1억원	-예수금	16억원	
			-선수수익	14억원	
	총 4억원 증가		총 48억원 감소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56억원			68억원
	-국민연금전환금	1억원			
	-퇴직보험예치금	2억원			
	-기타비유동부채	9억원			
	총 68억원 증가				
계	72억원 증가		48억원 감소		24억원

자료: KBS

2 손익 현황

가. 수입·비용 및 당기순이익 규모

- KBS의 2025년도 총수입¹¹⁾은 1조 2,445억원으로, 당초 예산(1조 3,367억원)보다 6.9%(922억원) 미달하였고, 전년(1조 3,317억원) 6.5%(872억원) 감소하였음.
- 한편, KBS의 2025년도 총비용¹²⁾은 1조 3,263억원으로, 당초 예산(1조 4,131억원)보다 6.1%(868억원) 적고, 전년(1조 4,052억원) 대비 5.6%(789억원) 감소하였음.
- 수입에서 비용과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은 818억원으로, 당초 예산상 당기순손실 764억원 대비 54억원 악화되었고, 전년(735억원)에 비하여도 손실 폭이 83억원 증가하였음.

11) 총수입 = 매출액(사업수입) + 사업외 수입

12) 총비용 = 매출원가(사업비) + 판매비와 관리비 + 사업외 비용 + 법인세비용

<KBS 손익 현황(2025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 결산(a)	2025년		예산 대비 결산		전년 대비	
		예산(b)	결산(c)	결산액 (c-b)	비율(c/b)	증감액 (d=c-a)	증감률(d/a)
수입(A)	13,317	13,367	12,445	-922	△6.9	-872	△6.5
비용(B)	14,034	14,131	13,290	-841	△6.0	-744	△5.3
세전이익 (A-B)	-717	-764	-845	-81	△10.6	-128	17.9
법인세비용(C)	18	-	-27	-27	-	-45	-
당기순이익 (A-B-C)	-735	-764	-818	-54	△7.1	-83	11.3

자료: KBS

- 수익구조를 사업순익과 사업외순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5년 도 사업 부문에서 996억원의 손실, 사업외 부문에서는 151억원의 이익이 각각 발생하였음.
- 사업 부문에서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수신료 분리고지의 영향과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외 부문에서는 관계사 지분법이익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

<최근 6년간(2020~2025년) KBS 손익 구조>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순익 (A)	△140	△71	△90	△645	△881	△996
사업외순익 (B)	548	232	△86	167	164	151
법인세 (C)	81	△232	△58	75	18	△27
당기순이익 (A+B-C)	327	393	△118	△553	△735	△818

자료: KBS

- 참고로, 2025년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비교해 보면, KBS의 경우 818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반면, MBC와 SBS는 각각 1,777억원¹³⁾과 8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순손실) 현황(2020~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KBS	327	393	△118	△553	△735	△818
MBC	△267	1,773	59	966	215	1,777
SBS	△782	1,077	1,204	316	△174	80

자료: KBS

13) MBC는 2025년 27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부산MBC 사옥 매각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 발생으로 사업외이익 2,372억원이 발생하며 1,7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나. 수입 · 비용의 구성

- 2025년 수입 1조 2,445억원 중 97.4%(1조 2,117억원)는 매출액이 차지하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7억원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중 수신료수입이 51.1%(6,196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비용 1조 3,263억원 중 매출원가가 82.3%(1조 915억원)를 차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198억원(16.6%), 사업외비용 및 법인세비용이 150억원(1.1%)임.

<수입·비용의 구성비(2024·2025년)>

(단위: 억원, %, %p)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수 입	매출액	금 액	12,974	12,117	△857
		구성비	97.4	97.4	0.0
	사업외수입	금 액	343	328	△15
		구성비	2.6	2.6	0.0
	계	금 액	13,317	12,445	△872
		구성비	100.0	100.0	-
비 용	매출원가	금 액	11,576	10,915	△661
		구성비	82.4	82.3	△0.1
	판매비와 관리비	금 액	2,279	2,198	△81
		구성비	16.2	16.6	0.4
	사업외비용	금 액	179	177	△2
		구성비	1.3	1.3	0.0
	법인세비용	금 액	18	-27	△45
		구성비	0.1	-0.2	△0.3
	계	금 액	14,052	13,263	△789
		구성비	100.0	100.0	-
당기순이익(금액)			-735	-818	△83

자료: KBS

다. 이익잉여금 처분(안)

- KBS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¹⁴⁾에 따라 처리하는데, KBS는 2025회계연도 당기순손실 818억원 중 116억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보전할 계획임.
- 또한, 남은 당기순손실은 기업합리화적립금(90억원)과 사업확장적립금(612억원)에서 보전함으로써 해당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계획임.
- KBS의 당기순손실 처분(안)은 우리 위원회의 결산 승인에 따라 확정¹⁵⁾되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14)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4. 사업확장적립금등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의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등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법정적립금, 동항 제4호의 사업확장적립금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5)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⑥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KBS의 당기순손실 처분(안)(2025년)>

(단위: 억 원)

구 분	처분 전	당기처분	처분 후	비 고
이익준비금	1,031	-	1,031	• 자본금의 1/2까지 이익금의 2/10 이상 적립 : 완료
기업발전적립금	2,037	-116	1,921	• 법인세법 제56조 : 2001.12.31 폐지
기업합리화적립금	90	-90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2002.12.11 폐지
사업확장적립금	612	-612	-	• 공사 정관 제39조
국고납입(배당)	-	-	-	• 기획재정부 배당 통보
합 계	3,770	-818	2,952	

자료: KBS

Ⅱ. 검토 의견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부채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 자구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가. 수익성지표 분석

- KBS의 2025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6.8%,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4.7%, 총자산 순이익률은 -7.5%로, 전년도 대비 각각 1.1%p, 3.2%p, 1.2%p 감소하였음.
- 이러한 수익성지표의 악화는 2025년에 당기순손실이 818억원으로, 2024년(735억원) 대비 11.3% 증가한 것에 직접적으로 기인함.
- 특히, 경영 효율화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타 지상파방송사업자(MBC, SBS)와 달리 KBS는 유독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매출액·자기자본·총자산 대비 수익성 지표도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상파 3사의 수익성지표>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KBS	MBC	SBS	KBS	MBC	SBS	KBS	전년 대비	MBC	SBS
매출액 순이익률	-4.0	13.0	3.6	-5.7	2.9	-2.3	-6.8	△1.1	24.7	1.2
자기자본 순이익률	-7.9	4.3	4.3	-11.5	0.9	-2.5	-14.7	△3.2	7.1	0.7
총자산 순이익률	-4.3	4.0	2.7	-6.3	0.9	-1.6	-7.5	△1.2	6.7	0.5

주1: 매출액 순이익률 (%)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주2: 자기자본 순이익률 (%)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주3: 총자산 순이익률 (%)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료: KBS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료 수입이 전년(6,516억원) 대비 4.9% 감소하였고, 방송광고수입도 전년(1,677억원) 대비 18.0% 급감하였으며, 콘텐츠판매수입 또한 전년(3,472억원) 대비 4.7% 감소하는 등 수입 부문에서 감소 폭이 857억원에 달하였음.

- 반면, 방송제작비와 인건비 절감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하회함에 따라 매출액은 1조 2,117억원으로 2024년(1조 2,974억원) 대비 6.6% 감소하였고, 사업손실은 996억원으로 2024년(881억원) 대비 13.1%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2022~2025년) KBS의 손익 구조>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매출액	14,825	13,865	12,974	12,117	△6.6 %
매출원가	12,787	12,537	11,576	10,915	△5.7 %
판관비	2,129	1,973	2,279	2,198	△3.6 %
사업이익(손실)	-90	-645	-881	-996	13.1 %
사업외순익	-86	167	164	151	△8.5 %
당기순이익(손실)	-118	-553	-735	-818	11.3 %

주1: 사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주2: 당기순이익 = 사업이익 + 사업외순익

자료: KBS

- 특히, 2022년 이후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작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단기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수입 감소 폭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임.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핵심 수입원인 방송광고 및 콘텐츠판매수입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KBS는 단기적 비용 절감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적 체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성장성지표 분석

- KBS의 2025년 성장성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 6.6%, 총자산 증가율이 - 6.8%, 자기자본증가율이 - 12.8%를 기록하였음.
- 최근 4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과 총자산의 역성장이 지속되고 자기자본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성장성 지표의 침체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음.

<최근 4년간(2022~2025년) KBS의 성장성지표>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증가율	+1.7	△6.5	△6.4	△6.6
총자산 증가율	+3.0	△8.4	△8.7	△6.8
자기자본 증가율	△1.4	△8.5	△9.0	△12.8

주1: 매출액 증가율 (%) =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100

주2: 총자산 증가율 (%) =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

주3: 자기자본 증가율 (%) =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100

자료: 2025회계연도 KBS 결산서

○ 한편, KBS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1,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원(16.4%) 감소하였고, 비유동자산은 9,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1억원(4.5%) 감소하였음.

- 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수신료와 방송광고수입 등 주요 수입원 급감으로 사업 운영을 통한 현금 유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비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누적과 신규 투자 축소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2022~2025년) KBS의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당좌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17	385	648	297	△351
	매출채권	2,898	2,056	1,385	1,250	△135
	기타당좌자산	515	494	162	260	+98
재고자산		91	76	61	78	+17
유동자산 소계		3,921	3,011	2,256	1,885	△371
투자자산		3,953	3,942	4,035	3,967	△68
유형자산		5,483	5,287	4,909	4,629	△280
기타비유동자산		595	544	479	406	△73
비유동자산 소계		10,031	9,773	9,423	9,002	△421
자산총계		13,952	12,784	11,679	10,887	△792

자료: 2025회계연도 KBS 결산서

- 이처럼 매출액과 총자산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미래 현금 창출 능력과 사업 역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중장기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생산성지표 분석

- KBS는 2025년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부가가치액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총자본 역시 함께 축소되면서 나타난 착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매출액, 총자본뿐만 아니라 2025년도 부가가치액¹⁶⁾ 또한 사업손실 폭 확대로 인해 2024년(5,073억원) 대비 6.9% 가량 감소한 4,721억원에 그쳤는데, 이는 비상경영에 따른 자구 노력이 경영효율성의 실질적 증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조직의 외형과 생산 기반이 동시에 줄어드는 ‘축소균형’ 국면에 머물러있음을 시사함.
- 한편, KBS는 2025년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1인당 매출액 또한 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는데, 단순한 고정비 감축 위주의 대책으로 인해 인적 자원의 생산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6) 부가가치액=세전이익+인건비+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의 생산성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가가치율	45.8	40.5	42.1	39.1	39.0
총자본 투자효율	49.3	43.1	45.7	43.4	43.4
1인당 매출액	333	357	343	342	324

주1: 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액/매출액 ×100

주2: 총자본 투자효율 (%) = 부가가치액/총자본 ×100

주3: 1인당 매출액 = 매출액 / 인원

자료: 2025회계연도 KBS 결산서

- 따라서 KBS는 인력과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유 자산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회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안정성지표 분석

- KBS의 2025년 유동비율은 152.1%, 당좌비율은 145.8%, 부채비율은 95.7%로 2024년 대비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안정성지표의 악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의 감소로 인한 당좌자산의 감소(전년 대비 17.7% 감소)와 이를 포함한 유동자산의 감소(전년 대비 16.4%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의 안정성지표>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동비율	229.3	201.3	193.0	175.9	152.1
당좌비율	226.2	196.7	188.1	171.1	145.8
부채비율	74.3	82.1	82.3	83.1	95.7

주1: 유동비율 (%) =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주2: 당좌비율 (%) = 당좌자산/유동부채 ×100

주3: 부채비율 (%) = 부채총계/자기자본 ×100

자료: KBS

- 이러한 안정성지표의 악화는 KBS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과 장기 재무건전성이 동시에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급감하면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 대비 신속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유입

이 줄어들며 향후 우발적인 재무 충격 발생 시 즉각적 유동성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연례적인 당기순손실로 자기 자본이 축소되고 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손실 흡수를 위한 재무적 완충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KBS는 단기 채무에 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현금흐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 분석

- KBS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 들어 당기순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등 경영지표 전반이 전년 대비 악화되었음.
- 우선 수익성지표의 경우, 매출액 순이익률(-6.8%), 자기자본 순이익률(-14.7%), 총자산 순이익률(-7.5%)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며 수익 창출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성장성지표 역시 매출액증가율(-6.6%), 총자산증가율(-6.8%), 자기자본증가율(-12.8%) 모두 음(-)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공사의 외형 규모와 재무적 체력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음으로 생산성지표인 부가가치율(39.0%)과 총자본 투자효율(43.4%)은 전년 대비 정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인당 매출액(3.24억원)이 전년 대비 5.3% 감소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추세임.
- 마지막으로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152.1%), 당좌비율(145.8%)은 전년 대비 급감한 반면 부채비율(95.7%)은 급증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과 장기적인 채무 안정성이 동시에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과 자산의 지속적인 감소는 KBS의 미래 잠재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자기자본 축소와 유동성 약화는 단기·장기 위기 대응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바, KBS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KBS는 2025년 2월부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성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입 전반에 대한 전략 재정립 및 비용 구조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함.
- KBS는 부채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 자구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¹⁷⁾

17)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4년 7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기적 경영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BBC·NHK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구조 개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2 수신료 통합징수 재도입에 따른 수신료 징수실적 제고 필요

○ 2025년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도입되었으므로, KBS는 수신료 징수실적을 제고 하하여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56조¹⁸⁾에 따르면, KBS의 경비는 같은 법 제64조¹⁹⁾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입, 협찬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음.
- KBS는 2025년 수신료수입 예산으로 6,120억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결과 6,196억원으로 목표 대비 101.2%를 달성하였으나, 2024년(6,516억원)에 비하여는 4.9% 감소하였음.
- 수신료수입이 KBS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48.9%,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49.8%로, 수신료는 KBS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

18)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9)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KBS 수신료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과목	2025년 예산 (A)	2025년 결산 (B)	예산 대비 달성률 (B/A)	2024년 결산 (C)	전년 대비	
					차이 (D=B-C)	증감률 (D/C)
수신료수입	6,120	6,196	101.2	6,516	△320	△4.9
총수입	13,164	12,445	94.5	13,317	△872	△6.5
총수입 대비 수신료수입 비중	38.9	49.8	-	48.9	-	-

자료: KBS

- KBS 수신료수입과 관련하여, 2023~2025년에 걸친 수신료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간 전환이 수신료수입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였음.
-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개정(대통령령 제33634호)으로 수신료 고지방식이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5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²⁰⁾ 이후 2024년 7월부터 분리고지·징수가 시행됨.

20) 헌재 2024.5.30. 2023헌마820등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취소 등]

[주문]

1.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개정 연혁 >

대통령령 제16751호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령 제33634호 (대통령령 제3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령 제36355호 (현행)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 지행위와 <u>결합하여 이를 행 할 수 있다.</u>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 지행위와 <u>결합하여 이를 행 하여서는 안된다.</u>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삭 제>

- 이후 국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2024.12.26.), 대통
령 직무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025.1.22.) 및 국회 재의결
(2025.4.17.)을 거쳐 2025년 4월 「방송법」 제67조가 개정되며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재도입되었고, 2025년 10월 해당 조항
이 시행된 후 2025년 11월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되었음.

< 「방송법」 제67조 개정 연혁 >

법률 제17347호 (법률 제2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952호 (현행)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u><신 설></u>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u>결합하여 이를 행한 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 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u>

- 수신료 고지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100%, 2023년 98%였으나, 분리징수 도입 이후 개별 가구의 수신료 납부 중단 신청으로 수납 이탈이 발생하며 2024년 8월에는 그 비율이 85.6%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그런데,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개된 2025년 11월 이후 첫 달 수입인 2025년 12월의 수납률이 분리징수 도입 이전인 2024년 1~7월 수준으로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등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음.

<2023~2025년 KBS 수신료 월별 납부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고지금액(A)	수입금액(B)	수납률(B/A)
2023년	1~12월	6,969	6,850	98.3
2024년	1월	578	572	98.9
	2월	579	550	95.0
	3월	578	567	98.1
	4월	570	561	98.4
	5월	576	556	96.4
	6월	569	568	99.7
	7월	572	559	97.8
	8월	578	494	85.6
	9월	581	522	89.8
	10월	580	523	90.1
	11월	572	521	91.1
	12월	571	524	91.8
	소 계	6,904	6,516	94.4
2025년	1월	568	516	90.9
	2월	568	515	90.7
	3월	565	517	91.4
	4월	560	516	92.1
	5월	563	507	90.0
	6월	560	518	92.4
	7월	561	518	92.3
	8월	565	514	91.0
	9월	566	525	92.6
	10월	565	498	88.1
	11월	560	519	92.6
	12월	555	535	96.3
	소 계	6,756	6,196	91.7

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기간은 음영처리하였음

자료: KBS

- 비록 KBS가 2025년 예산(6,120억원) 대비 101.2%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예산 편성·확정 당시²¹⁾ 2025년 연중 상시 분리징수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월평균 510억원의 수신료 수입만을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과소 계상된 것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함.
- 특히, KBS가 6개월의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통합징수 재 전환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을 추진하였음에도, 통합징수가 재개된 이후인 2025년 12월의 징수실적이 2024년 중 통합징수되던 기간(1~7월)의 월평균 징수실적(562억원)의 95%인 535억원에 그치고 있음.
- 참고로, 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재도입하는 「방송법」 개정 이후인 2025년 8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지 방식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21) ‘KBS 2025년도 종합예산안’은 2025.1.24. KBS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었음

- 이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통해 고지 방식 전환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징수 재도입 초기 KBS의 수신료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2025 회계연도 수신료 수입 감소 및 사업손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해 KBS는 2025년 8월 방송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징수 제도 변경을 안내하였고, 2025년 9월 한국전력과 수신료 위수탁 계약서·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수신료 콜센터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하여 긴밀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TV수상기 확인 절차 강화와 미신고 TV수상기 적극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 따라서,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 재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수신료 징수실적을 제고함으로써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방송광고 규제완화 기조에 맞춘 방송광고수입 회복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추어 판매 전략 다변화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방송광고수익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의 수입 중 방송광고수입은 지상파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를 활용한 상업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임.
- 2025년 KBS는 방송광고 수입예산으로 1,80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1,375억원으로 목표 대비 76.1%를 달성하는 데에 그쳤고, 이는 2024년(1,677억원)에 비하여는 18.0% 감소한 수치임.
- 총 수입에서 방송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1.0%) 역시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음.

<KBS 방송광고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과목	2025년 예산 (A)	2025년 결산 (B)	예산 대비 달성률 (B/A)	2024년 결산 (C)	전년 대비	
					차이 (D=B-C)	증감률 (D/C)
방송광고수입	1,807	1,375	76.1	1,677	△302	△18.0
총수입	13,164	12,445	94.5	13,317	△872	△6.5
총수입 대비 방송광고수입 비중	13.7	11.0	-	12.6	-	-

자료: KBS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을 통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직후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6년간(2020~2025년) KBS 방송광고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방송광고수입	2,319	2,705	2,642	1,967	1,677	1,375
전년 대비 증감률	△9.0	16.6	△2.3	△25.5	△14.7	△18.0

자료: KBS

- KBS 방송광고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는 OTT 이용률 확대²²⁾ 등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전체 방송광고시장 및 지상파방송광고시장 침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²³⁾에 따르면 ‘방송광고비’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2025년 기준 2.8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온라인광고비’ 규모(약 10.7조 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상파TV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0.1%로 지속적인 역성장을 보이고 있음.

22) 2025년 1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OTT 이용률은 ('21년) 69.5% → ('22년) 72.0% → ('23년) 77.0% → ('24년) 79.2% → ('25년) 81.8%로 증가 추세임.

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2026.1. 공동으로 발행한 국가승인통계임.

- 이에 반해 PC 및 스마트폰 광고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8%, 7.5%인데, 방송통신매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할 때 온라인광고시장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체 유형별 방송통신광고비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매체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치)
방송	40,531	40,212	33,899	32,191	27,744
지상파TV	13,597	13,762	11,094	10,364	8,874
신문·잡지	20,208	21,277	20,260	19,875	19,890
온라인	80,036	87,062	93,653	101,011	107,204
PC	17,797	19,027	20,766	23,112	24,078
스마트폰	62,239	68,035	72,887	77,899	83,126
옥외	9,302	10,693	12,208	12,590	12,852
기타	5,097	5,958	5,390	5,595	5,027
총광고비	155,174	165,203	165,410	171,263	172,717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2026.1.)

- 다만, 지상파방송광고시장에서 KBS의 점유율이 역대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KBS의 방송광고수입 급감을 단순히 시장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임.
- 2025년도 KBS 방송광고수입은 전체 지상파방송광고수입 감소율(△17.7%)을 상회하는 △18.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지상파 3사 중 방송광고수입이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상파TV광고시장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KBS	2,705	2,642	1,967	1,677	1,375	△18.0%
	점유율 (%)	22.4	21.9	21.2	20.1	19.8	△0.3%p
	MBC	3,984	3,974	2,959	3,006	2,575	△14.6%
	점유율 (%)	33.0	32.9	31.9	36.0	37.1	+1.1%p
	SBS	23,536	3,701	2,900	2,415	1,910	△20.9%
	점유율 (%)	29.3	30.6	31.3	28.9	27.5	△1.4%p
지상파 3사 소계		10,225	10,317	7,826	7,098	5,860	△17.4%
지상파 전체		12,071	12,090	9,273	8,354	6,936	△17.0%

자료: 20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26.6.)

- KBS의 지상파TV광고시장 내 점유율 약세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재난방송, 지역방송 등) 수행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에 더불어, 킬러 콘텐츠 부재로 인해 타 지상파방송사 대비 방송 경쟁력이 약화된 점과 광고주 수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방송광고 허용 시간 규제, 중간광고 허용 요건, 자막 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크기 제한, 가상광고 허용범위·시간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²⁴⁾된바, KBS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가 과거 중간

광고 도입 당시와 같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완화된 규제에 부합하는 광고 판매 전략 다변화 등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KBS는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입 증대, KBS 보유 특허 기술을 통한 로열티 수입 확대, KBS IP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및 포맷 판매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함.
- 한편,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통해 2026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45.9%의 광고매출 증가를 이끌어낸바, 이를 계기로 유입된 광고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디지털 광고상품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광고수입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KBS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추어 광고주 수요 맞춤형 광고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략 다변화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방송광고수익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⁵⁾

24) 공고번호 제2026-193호, 예고기간 2026.6.15.~2026.7.27.

25)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므로,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실행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4 제작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판매수입 증대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 절감으로 인한 수입 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비 투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IP확보, OTT와의 공동 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제작비 투입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방송 아카이브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AI 기반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추진하고, FAST·VOD 서비스 맞춤형 콘텐츠 유통·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KBS는 콘텐츠판매수입예산으로 3,67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3,308억원으로 목표 대비 90.0%를 달성하는 데에 그쳤고, 이는 2024년(3,472억원)에 비하여 4.7% 감소한 수치임.

<KBS 콘텐츠판매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과목	2025년 예산 (A)	2025년 결산 (B)	예산 대비 달성률 (B/A)	2024년 결산 (C)	전년 대비	
					차이 (D=B-C)	증감률 (D/C)
콘텐츠판매수입	3,673	3,308	90.0	3,472	△164	△4.7
총수입	13,164	12,445	94.5	13,317	△872	△6.5
총수입 대비 콘텐츠판매수입 비중	27.9	26.6	-	26.1	-	-

자료: KBS

- 연도별 KBS의 콘텐츠판매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2025년에는 국내(△2.9%)와 해외(△19.1%) 매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국내·해외·전체 콘텐츠판매수입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콘텐츠판매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콘텐츠판매수입	3,777	3,872	3,780	3,472	3,308
국내	3,305	3,417	3,183	3,085	2,995
해외	472	455	597	387	313
전년 대비 증감률	13.6	2.5	△2.4	△8.1	△4.7

자료: KBS

- KBS는 최근 몇 년간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비 감축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재무 수지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 본연의 역할인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역량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 성장 기반과 경쟁력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KBS는 2022년까지 방송제작비 지출을 늘려왔으나, 2023년 이

후 사업손실 완화를 위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방송제작비 절감 기조를 이어왔으며, 2025년 방송제작비 지출은 2024년(9,328억원) 대비 6.6%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방송제작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방송제작비	6,160	6,774	6,357	5,994	5,548
전년 대비 증감률	11.1	10.0	△6.2	△5.7	△7.4

자료: KBS

○ 또한, KBS 콘텐츠판매수입이 타 지상파방송사(MBC·SBS)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²⁶⁾되고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재정 악화에 따른 제작비 감축이 흥미성과 창의성을 갖춘 신규 콘텐츠 부재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판매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한 시청자평가지수(KI²⁷⁾) 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에 대한 질적 평가를 보여주는 ‘채널성과지수’ 측면에서 KBS1·KBS2 채널의 흥미성과 창의성이 타 방송사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6)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KBS의 콘텐츠판매수입 3,472억원은 MBC의 4,591억원과 SBS의 4,528억원 대비 각각 75.6%, 76.7%로 추정됨. 다만, 각 사마다 콘텐츠판매수입 구성 항목 및 집계방식에 차이가 존재하여 단순 비교에 한계는 있다고 보임.

27) Korea Communications Commision Index

<시청자평가지수(KI) 중 채널성과지수 조사 결과>

구 분	KBS1	KBS2	MBC	SBS
흥미성	3.47	3.71	3.84	3.82
다양성	3.67	3.57	3.76	3.71
신뢰성	3.63	3.45	3.67	3.56
유익성	3.69	3.51	3.68	3.60
창의성	3.25	3.34	3.57	3.54
공정성	3.45	3.36	3.57	3.44
공익성	3.45	3.27	3.51	3.38

자료: 2025년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12.)

- 전통적 재원인 수신료·방송광고수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콘텐츠판매수입 증대가 필요하므로, KBS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작비 절감으로 인한 킬러 콘텐츠 부재가 콘텐츠판매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하여, 흥미성과 창의성을 갖춘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비 투입 규모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작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 경비 절감만을 추진하는 대신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적극 확보하고 OTT 사업자와의 공동제작을 활성화하는 등 제작비 투입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KBS는 보유한 방대한 방송 아카이브 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하여 AI 기반 디지털 리마스터링 등 재가공을 통해 북미·유럽 등에서 급성장 중인 FAST²⁸⁾ 및 VOD 플랫폼 맞춤형 유통·판매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KBS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자원 집중 배분, 장르·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데이터 기반 기획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외 로컬 OTT 유통과 포맷 수출 확대를 통한 수입원 다각화, 지상파 3사 공동의 글로벌 FAST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콘텐츠 수입 확대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28)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란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채널과 비실시간(VOD)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함.

- 따라서 KBS는 킬러 콘텐츠 중심의 전략적 투자 확대, IP 확보 및 공동제작 활성화 등 제작비 투입의 양적·질적 효율성 제고와 방송 아카이브 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유통·판매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콘텐츠판매수입 증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²⁹⁾

29)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한국방송공사는 콘텐츠 수익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와 투자를 확대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회복하고, 특히 IP확보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OTT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실행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5 수익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디지털플랫폼 이원화 전략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외부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유통함으로써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고, 자사 플랫폼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KBS는 본사 디지털전략국, 디지털뉴스국 및 자회사(KBS미디어)를 통해 KBS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홈페이지와 앱(KBS+, KONG)을 운영하고 있음.
- ‘KBS 홈페이지’는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70개의 실시간 채널, 10개의 정주행 채널 및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KBS+(앱)’는 TV 실시간채널 및 다시보기를, ‘KONG(앱)’은 라디오 실시간채널 및 다시듣기를 제공함.
- 「한국방송공사 2025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른 홈페이지 및 앱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KBS 홈페이지 MAU³⁰⁾는 연평균 275만명이었으며, KBS+와 KONG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1,752만건과 1,583만건임.

30) MAU(Monthly Active Users)란 1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임.

- 2025년 기준 KBS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20억 1,100만원의 광고매출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디지털 플랫폼 광고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영상광고		1,768	2,144	1,145	729	669
그 외 광고 (기사형, 배너 등)	홈페이지	10	118	206	176	266
	KBS+	150	150	120	120	120
	KONG	1,008	1,061	1,119	961	956
합계 (전년 대비 증감률, %)		2,936 (-)	3,473 (18.3)	2,590 (△25.4)	1,986 (△23.3)	2,011 (1.3)

자료: KBS

- 그러나, 온라인광고비 규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6%,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이 6.1%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KBS 디지털 플랫폼 광고매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1.3%)은 전체 시장의 성장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온라인 광고비 현황>

(단위: 억원)

매체 유형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치)
온라인		80,036	87,062	93,653	101,011	107,204
	PC	17,797	19,027	20,766	23,112	24,078
	스마트폰	62,239	68,035	72,887	77,899	83,126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2026.1.)

- 이는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이용자와 광고가 대형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 및 앱 이용 지표는 정체·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KBS 자사 플랫폼 광고매출이 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유튜브 채널 등 플랫폼에서는 광고 등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앱만으로는 트래픽과 광고수입 확대를 추구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유튜브 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익	229	243	226	219	208

자료: KBS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홈페이지·앱 MAU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홈페이지		3,112	2,988	2,843	2,397	2,454
앱	KBS+	488	402	295	242	206
	KONG	899	705	723	696	684
합계 (전년 대비 증감률, %)		5,621 (-)	5,412 (△9.0)	5,161 (△5.7)	4,663 (△13.6)	4,685 (0.3)

자료: KBS

- 이에 KBS는 수익성 측면에서 외부 플랫폼(포털·OTT)을, 공공성 측면에서 자사 플랫폼(홈페이지·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플랫폼의 경우, 숏폼 등 해당 플랫폼 특성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광고와 후원 등을 통한 디지털광고수입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사 플랫폼의 경우, 무리한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어린이·고령층·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KBS는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외부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유통함으로써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고, 자사 플랫폼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재난방송 인력·예산 감소 및 장비·인프라 노후화 문제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노후화된 장비·인프라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음.³¹⁾

○ 그러나, KBS가 대규모 적자 구조 속에서 실시한 고강도 비용절감 조치가 재난방송 관련 인력·예산 및 인프라 투자 축소로 이어져 재난방송 수행 역량 약화 및 부실화가 다음과 같이 우려되는 상황임.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 첫째, KBS의 재난방송 인력의 지속적 감소와 관련 예산의 감액 추세는 현장 취재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KBS는 최근 비상경영 및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인력 축소 및 인건비 감소를 통해 방송제작비를 감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난방송 관련 인력 및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2023~2025년) KBS 재난방송 관련 인력·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난방송 인력	26	23	22
재난방송 예산	3,679	3,001	3,045

자료: 2025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보고서

○ AI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반복 업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관별 정보 검증이나 지역별 행동요령의 방송 반영에는 여전히 숙련된 전문인력의 판단이 필요하고, 연중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인력 규모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산 측면에서도, 재난방송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예산 감액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재난방송 장비·인프라는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비투자 축소의 여파로 장비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재난방송 품질 저하 및 방송 공백 발생이 우려됨.
- 최근 KBS의 자본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예산 집행액이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여 유형자산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³²⁾
- KBS는 2025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방송제작장비 보강, 일반시설 보강 등을 위하여 자본예산 55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217억원에 그치며 집행률이 39.2%에 불과하였음.³³⁾

32)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한국방송공사는 설비투자가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방송설비 및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감가상각비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투자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강화, 영업활동 기반 현금 창출력 회복과 연계된 재무구조 개선 대책마련을 추진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33) 다만, KBS는 집행을 수치가 보증금 반환 등 과정에서의 ‘투자외 기타’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항목을 제외한 자본예산은 예산 426억원 대비 27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4.8%라고 설명함.

<최근 3년간(2023~2025년) KBS 자본예산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388	224	57.7	153	79	51.6	214	139	65.0
방송제작장비 보강	155	56	36.1	60	35	58.3	63	46	73.3
연구개발, 정보화, 뉴미디어	136	89	65.4	66	35	53.0	70	42	60.9
일반시설 보강	181	69	38.1	56	49	87.5	80	49	60.7
지역국 청사 신·증축	10	0	0.0	5	0	0.0	0	0	-
투자과 기타	34	32	94.1	58	-5	-8.6	126	-59	-47.0
합계	870	438	52.0	340	198	48.5	552	217	39.2

자료: KBS

- 자본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2023년 이후 KBS의 연간 자본예산 집행액은 매년 감가상각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2025년에도 투자액이 감가상각(539억원) 대비 300억원 이상 미달하였음.³⁴⁾

34) 다만, KBS는 2022년 대규모 자본예산 집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높게 인식된 결과이며, 2023년 이후 투자가 축소되어 향후 인식될 감가상각비 규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최근 4년간(2022~2025년) 자본예산 집행액과 감가상각비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본예산 집행 (A)	1,216	470	193	217
감가상각비 (B)	529	605	564	539
차이 (A-B)	687	△135	△371	△322

자료: KBS

- 이에 따라 KBS 유형자산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 투자 속도가 기존 자산의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최근 4년간(2023~2025년) 유형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자산	13,952	12,784	11,679	10,887
유형자산	5,483	5,287	4,909	4,629
전년 대비 증감률	4.5%	△3.6%	△7.1%	△5.7%

자료: KBS

-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재난방송의 인적·물적 자산 축소 및 재난방송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이에 대해 KBS는 전사적 예산 긴축 기조 속에서도 자체 재난방송 관련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필수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필수 장비 교체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KBS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노후화된 장비·인프라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7 2TV채널 장애인방송(수어방송) 편성비율 제고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최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2TV채널의 장애인방송(수어방송) 편성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69조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³⁵⁾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필수지정사업자 중 하나임.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라 함)³⁶⁾에 따르면 KBS가 준수하여야 하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은 폐쇄자막방송 100%,

35)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36)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임.

- KBS는 「한국방송공사 2025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전체 채널을 합산하여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의 기준을 초과 달성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³⁷⁾ 2TV채널로 한정할 경우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TV채널은 연례적으로 수어방송 편성비율이 3~4%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채널별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단위: 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TV	전체방송시간	509,915	509,905	509,280	513,265	511,685
	수어방송 편성시간	120,155	118,605	122,870	132,210	133,310
	수어방송 편성비율 (%)	24.1	23.8	24.4	26.2	26.5
2TV	전체방송시간	463,240	460,010	458,510	447,800	441,315
	수어방송 편성시간	14,550	15,070	19,215	19,235	16,360
	수어방송 편성비율 (%)	3.2	3.9	4.2	4.3	3.7
전체	전체방송시간	973,155	969,915	967,790	961,065	953,000
	수어방송 편성시간	134,705	133,675	142,085	151,455	149,670
	수어방송 편성비율 (%)	14.1	13.9	14.8	15.9	15.8

자료: KBS 경영평가 보고서

37) 「한국방송공사 2025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p130

- 「장애인방송고시」에 따르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 중 ‘필수지정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은 7%, 위성방송사업자는 4%³⁸⁾로 규정되어 있는바,

KBS의 2TV채널이 고시에 따른 의무 편성비율인 7%를 크게 미달하는 것은 방송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과 보편적 시청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하여 KBS로 하여금 각 채널별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비율의 80% 이상(현행 기준 5.6% 이상)을 편성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바³⁹⁾, KBS가 종전과 같이 4% 내외의 수어방송 편성비율을 유지할 경우 개정된 고시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이유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사업자인 KBS의 의무편성 비

38)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9) 「장애인방송고시」 (방미통위고시 제2026-19호, 2026.7.2.)

율을 현행 2개 채널 평균에서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방송고시」 제6조 개정 현황 >

고시 제2026-11호 (고시 제201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시 제2026-19호 (현행)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u>한 개</u>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③ -----2개-----제12조의 실적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채널별로 화면해설방송 및 한국수어방송은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KBS는 2TV채널의 수어방송 2026년 상반기 편성실적이 3.4%인바, 금년도 8월부터 주당 360분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KBS는 최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2TV채널의 장애인방송(수어방송) 편성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례적 미달 문제

○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기준 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8조⁴⁰⁾에 따라 KBS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⁴¹⁾에 따르면 KBS가 준수하여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⁴²⁾(2025년 기준 133명)임.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42) 참고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는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를 규정하여 2025년 기준 3.8%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1%가 적용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그러나, 2025년 기준 KBS의 장애인 근무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 산정 특례⁴³⁾를 적용하더라도 87명에 불과하여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원(133명)을 크게 미달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KBS의 장애인 근무인원은 20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매년 2.0%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장애인 고용	근무 인원	경증	74	64	62	58	57
		중증	16	17	14	15	15
		계	90	81	76	73	72
	중증 2배 산정 시		106	98	90	88	87
의무고용 대상인원			147	142	140	132	133
KBS 고용 비율			2.2	2.1	2.0	2.0	2.0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비율			3.1				

자료: KBS

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이로 인해 KBS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⁴⁴⁾에 따라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은 약 33억원에 달함.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납부금액	556	614	725	729	673	3,297

자료: KBS 경영평가 보고서

- 이는 KBS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민의 수신료가 포함된 공적 재원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중 하나임에도, KBS는 이를 고정 비용으로 취급하여 지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KBS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산업 직무 특성상 공개 채용 시 장애인의 지원율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KBS와 동일하게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EBS와 비교할 때 KBS의 행태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EBS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KBS와 동일한 법정 의무고용률 기준(3.1%)을 적용받는데, 2022년 이후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왔으며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의무 기준을 초과 달성하기도 하였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EBS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장애인 고용	근무 인원	경증	5	9	9	7	10
		중증	8	6	6	9	4
		계	13	15	15	16	14
	중증 2배 산정 시		21	21	21	25	18
의무고용 대상인원			22	21	21	21	20
EBS 고용 비율			2.9	3.1	3.1	3.7	2.8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비율			3.1				

자료: EBS

- 이에 대해 KBS는 2023년과 2025년 한시연봉직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도⁴⁵⁾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적용 하겠다고 설명함.
- 따라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고용부 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기준 의 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이 행할 필요가 있음.⁴⁶⁾

45) 최종 면접대상자 중 최종 합격 순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제도

46)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고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 달성을 위한 제도적·관리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9 임직원 장기근속 포상 점진적 축소 및 정비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상 기준을 고려하여, 임직원 장기근속 포상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⁴⁷⁾에 따라 10~30년 장기근속 임직원에 대하여 기념패, 포상금 및 휴가를 지급하는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KBS 임직원 장기근속 포상 기준>

장기근속기간	포상 지급기준		
	기념패	포상금	휴가
10년	4만원 상당	30만원	10일
15년	-	-	10일
20년	4만원 상당	40만원	10일
30년	4만원 상당	50만원	-

자료: KBS

47) 「한국방송공사 인사규정」

제54조(포상) 직원으로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발전 및 국가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거나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8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실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거나 상장 또는 부상만 수여한다. 다만, 타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근속상은 장기근속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10년, 20년, 30년 근속기념품이나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재직 공로패 및 기념품등을 말한다.

- 그런데, 최근 KBS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고강도 비용 절감을 통한 긴축 경영 체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포상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KBS가 장기근속 포상에 집행한 예산은 임직원 509명에 대하여 총 2억 3,115만원에 달함.

<2025년 KBS 장기근속 포상 지급내역>

(단위: 명, 천원)

장기근속기간	대상 인원	지급액 (기념패 포함)
10년	164	55,891
20년	120	53,040
30년	225	122,220
합계	509	231,151

자료: KBS

- 장기근속 포상 지급액은 인원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5년 지급액은 전년(약 1억 2,900만원) 대비 79% 증가하였음.
- 더욱이, KBS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약 19년에 달하는 인력구조 속에서 최근 5년간 장기근속 포상 지급액이 7억 5,000만원에 달하고, 향후 5년 동안에도 총 8억 2,500만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기근속 포상제도가 KBS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및 향후 5년간 장기근속 포상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장기근속기간별 대상 인원	10년	67	107	156	54	164	116	10	4	476	93
	20년	90	63	114	127	120	67	105	123	68	9
	30년	12	147	144	98	225	259	389	39	4	93
	계	169	317	414	279	509	442	504	166	548	195
포상 지급액		68	141	180	128	231	209	260	77	194	86

주: 2026~2030년의 수치는 2026.8. 기준 예상치임.

자료: KBS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아울러, KBS의 장기근속 포상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⁴⁸⁾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 KBS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⁴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8)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첫째, 같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취지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⁵⁰⁾이지, KBS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둘째, 「방송법」에 따라 KBS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⁵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되는 ‘특별부담금’ 성격⁵²⁾의 수신료가 KBS 재원 중 가장 큰 비중⁵³⁾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KBS의 재정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공적 재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및 경영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보임.
- KBS가 2025년 및 2026년 기본운영계획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과 필수사업 중심의 비용 운용을 통한 균형수지 달성을 경영목표로 수립하였다는 점⁵⁴⁾에서도 장기근속 포상 제도가 비용 절감 자구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9호 (2007.12.14.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51) 「방송법」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52) 현재 2008.2.28. 2006헌바70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53) 2025년 기준 49.8%

54) 한국방송공사 2025년 기본운영계획, 56p

노력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KBS는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상 기준을 고려하여, 임직원 장기근속 포상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임무

☐ KBS 설립목적(방송법 제43조)

-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 KBS 공적책임(방송법 제44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
-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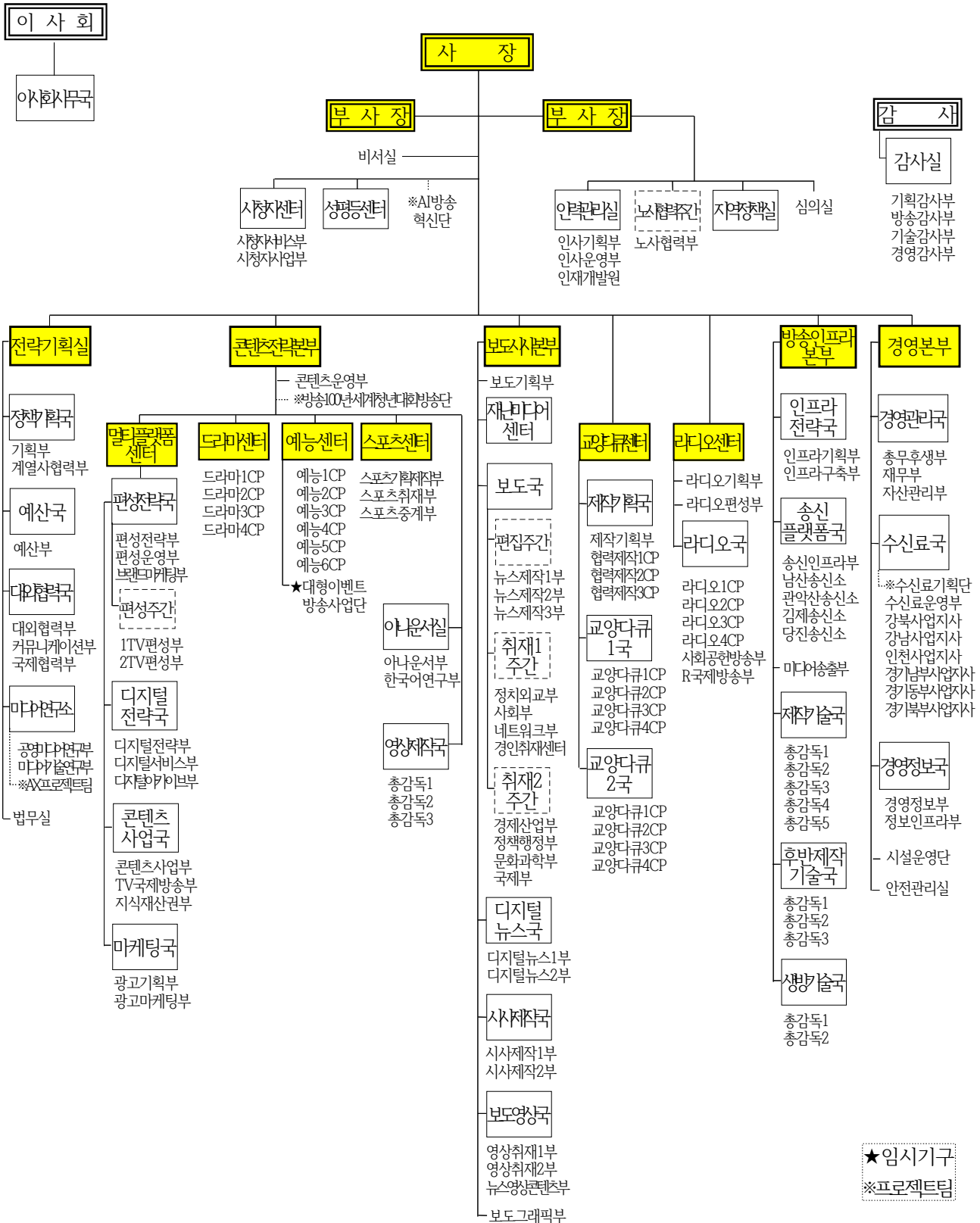
-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 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부호 'HL' 할당, KBS (중앙방송국) 출범
- 1948 국영방송 발족
- 1961 텔레비전방송 개국
-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공영방송 출범)
- 1980 텔레비전 컬러방송 시작, 광고방송 실시
- 1985 음성다중방송 실시
- 1986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1988 서울올림픽 주관방송 실시
- 1990 KBS방송강령 제정
- 1994 수신료징수제도 개선(한전 위탁징수), 1TV 광고 폐지
-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 1997 제34차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ABU) 서울총회 개최
- 2000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개국, 2라디오 FM방송 개시
- 2001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방송 실시, 부산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2003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KBS 윤리강령 제정
- 2004 지역국 기능 조정(9총국 9지역국으로 개편)
- 2005 APEC 2005 Korea 주관 방송 실시, KBS 지상파 DMB
<U KBS> 개국
- 2006 MMS(멀티모드서비스) 시험방송
- 2007 지상파 DMB 전국방송실시, 세계공영방송총회 개최
- 2010 G20 서울정상회의 주관 방송 실시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3D 중계방송
- 2012 여수엑스포 주관방송 실시
- 2013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KBS월드 개국 10주년
- 2014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주관방송, ITU 전권회의 주관방송,
WORLD 24 해외서비스 출범
- 2015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송기록물로는 세계2번째)

- 2016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취득
- 2017 세계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
- 2019 지상파UHD재난정보방송시스템 구축 및 시연
 <KBS 방송 편성규약> 개정
- 2020 ‘코로나19’비상방송체제 가동
 ‘만삭의 위안부’ 영상 첫 발굴
- 2021 제주 UHD TV 방송국 개국
- 2022 <연모>, 한국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 수상
- 2023 공사창립 50주년
- 2024 언론사 최초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출범
- 2025 공사 창립 52주년, ‘AI 방송 원년’ 선포, <AI방송혁신단> 출범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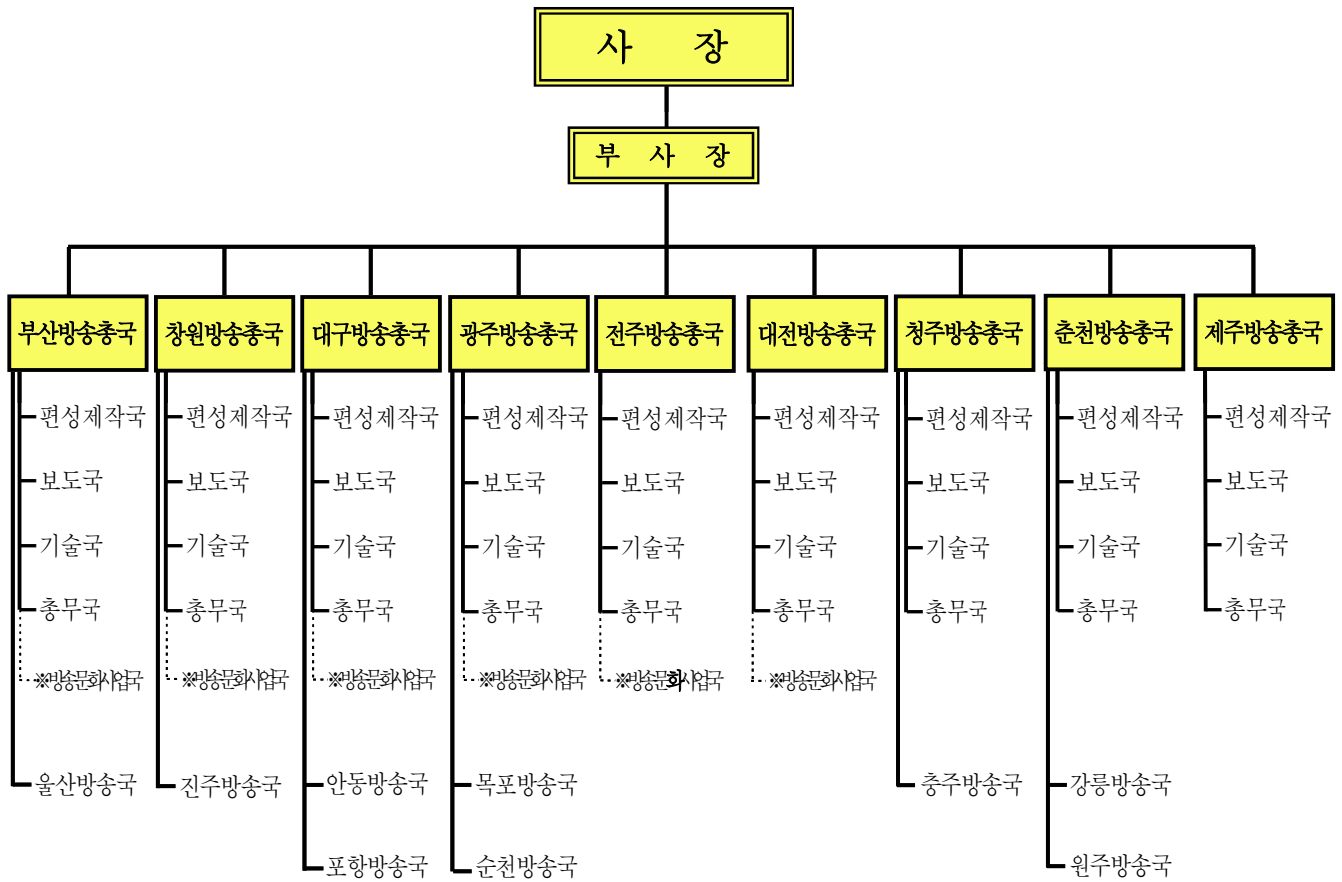
(2026. 8. 10. 기준)

<본사>



★임시기구
※프로젝트팀

<지역>



인 원

(2026. 8. 10.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집행기관 계)	12	7	(△5)
사 장	1	1	
감 사	1	1	
부 사 장	2	1	△1
본 부 장	8	4	△4
(일반직 계)	5,194	3,635	(△1,559)
(책임직급 계)	763	616	(△147)
M1직급	763	54	△147
M2직급		162	
M3직급		400	
(실무직급 계)	4,431	3,019	(△1,412)
G0직급	55	29	△26
G1직급	1,734	1,183	△174
G2직급		377	
G3직급	1,992	659	△823
G4직급		435	
G5직급		75	
G6직급	650	127	△389
G7직급		134	
촉 탁 직	32	2	△30
방송음악직	54	26	△28
수습직원			
합 계	5,292	3,670	△1,622

예 산

□ 2026년도 예산

(단위 : 억 원)

수 입		비 용	
수신료	6,700	사업경비	7,747
콘텐츠판매	3,502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	959
광 고	1,450	인건비	4,347
협찬/캠페인	810	감가상각비	483
국고금수입	110	사업외비용	110
시청자사업수입	137		
기타사업수입	191		
사업외수입	750		
합 계	13,650	합 계	13,646
		당기순이익	4

※ 최근 6년 수지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수입	14,342	15,082	15,305	14,244	13,317	12,445
총비용	14,015	14,689	15,423	14,797	14,052	13,263
손익	327	393	-118	-553	-735	-818

운영매체현황

(2026. 8. 10. 기준)

□ 방송 매체 현황

- ▶ TV, RADIO, DMB
- ▶ 국제 위성방송(KBS WORLD TV, KBS KOREA), 기타(KBS+, Kong)

◇ TV (4개)

매체	채널	채널 운영
지상파	1TV(HD/UHD)	보도·시사정보·스포츠·교양
	2TV(HD/UHD)	건전한 가정문화채널 (연예, 오락)

◇ RADIO (7개)

매체	채널 운영
1R	시사·교양 등 종합편성 채널
2R	한국인의 대중 음악 채널
3R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위한 공익 채널
1FM	국내 유일 클래식·국악 전문 채널
2FM	재미있고 젊은 예능 음악 채널
한민족방송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중심채널
KBS WORLD R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 DMB (4개)

U KBS 채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U KBS 스타★ 1TV 동시전송	U KBS 하트♥ 2TV 동시전송	U KBS 뮤직🎵 2FM 동시전송	U KBS 클로버♣ TPEG 서비스 (혼잡교통, 안전운전, 기상정보·유가정보 등)

◇ 국제 위성방송 (2026.1월 기준)

구분	운영 현황
KBS WORLD TV	○ 진입국가 : 전 세계 155개국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 확보가구 수 : 1억 5천만 가구 (*해외 플랫폼 가입자 기준 추정 범위)
KBS KOREA	○ 진입국가 : 미주, 아시아 등 63개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 해외 한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가구수 추정 불가

◇ 기타 (모바일앱)

구분	운영 현황
KBS+	○ 실시간채널 (39채널) : 1TV, 2TV, KBS WORLD TV, KBS NEWS 24, KBS N(5개), 지역국(10개), KBS 라디오(8개), 정주행 LIVE (10개), 모바일 특화채널(2개) 등 ○ 다시보기 : KBS1, KBS2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및 TV클립
Kong	○ 실시간채널 (8채널) : 1R, 2R, 3R, 1FM, 2FM, 한민족방송, KBS WORLD R(2개) ○ 다시듣기 : KBS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듣기

기본방송시간

(2026. 8. 10. 기준)

구 분		방송시간 (1일 평균)
TV	제 1 T V	23시간 15분
	제 2 T V	20시간
라 디 오	제 1 라디오	24시간
	제 2 라디오	22시간
	제 3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21시간
	제 1 F M	24시간
	제 2 F M	24시간
	한민족방송	20시간 (제1방송 기준)
	KBS WORLD Radio	50시간 30분 (23개 주파수 합산)
DMB	U-KBS 스타★(V)	23시간 15분
	U-KBS 하트♥(V)	20시간
	U-KBS 뮤직♪(A)	24시간
	U-KBS 클로버♣(D)	24시간
국제 위성방송	KBS WORLD TV	24시간
	KBS KOREA	24시간

※ TV, 라디오, DMB(스타, 하트, 뮤직) 개편 기준

※ 제 1·2 FM 방송시간은 수도권 기준으로 작성

※ DMB는 1, 2TV 지상파 수중계로 방송시간 동일함

※ KBS KOREA는 전 세계 한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전용채널

기본편성비율

(2026. 8. 10. 기준)

지 상 파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TV	제1TV	27.4	67.1	5.5	9,785분
	제2TV	5.3	40.0	54.7	8,410분
Radio	제1라디오	35.6	60.0	4.4	10,080분
	제2라디오	0.3	64.5	35.2	9,240분
	제3라디오	2.7	74.0	23.3	8,820분

FM음악방송					
구 분		국악(%)	서양(%)	가요(%)	팝(%)
제1FM (고전음악)		8.3	91.7	-	-
제2FM (대중음악)		-	-	83.3	16.7

국 책 방 송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한민족방송		11.0	64.0	25	8,400분
KBS WORLD R		21.2	41.6	37.2	21,210분

※ 한민족방송은 제1방송 기준

DMB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U-KBS 스타★(V)		27.4	67.1	5.5	9,785분
U-KBS 하트♥(V)		5.3	40.0	54.7	8,410분
U-KBS 뮤직♪(A)		0.3	11.4	88.3	10,080분
U-KBS 클로버♣(D)		-	-	-	10,080분

국제 위성방송					
구 분		보도(%)	오락(%)	교양(%)	합계(주간)
KBS WORLD TV		0.8	94.5	4.7	10,080분
KBS KOREA		30.8	13.5	55.7	10,080분

TV외주 편성비율			
구 분	1TV	2TV	합 계
외주비율	29.5%(2,752분)	53.7%(4,522분)	41.0%(7,274분)
주시청시간대 외주비율	33.8%(602분)	54.9%(996분)	44.4%(1,598분)

국내제작방송 프로그램비율	97.3%(9,064분)	98.7%(8,302분)	97.9%(17,366분)
------------------	---------------	---------------	----------------

※ 주당 기본편성시간 기준

※ TV, 라디오, DMB(스타, 하트, 뮤직) 개편 기준

※ KBS KOREA는 전 세계 한국인 및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전용채널

※ TV외주 및 국내제작 비율은 2025년 하반기 기준이며 적용방송시간 기준 (적용 방송시간은 방미통위에서 인정한 '편성제외 프로그램' 을 제외한 방송시간의 총합)

※ TV외주 편성비율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순수외주제작(방미통위 인정) 비율임

※ 모든 비율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

방송시설

(2026. 8. 10. 기준)

□ 방송국

- 본사 : 1개소 (※ 경인방송센터 별도)
- 지역 : 18개소 (방송총국 9, 지역국 9)

□ 주요시설

○ 제작시설

구 분		시설수	시설 개요
본사	TV	66	TV부조 14(스튜디오 21) ⁵⁵⁾ , 뉴스부조 4(스튜디오 4) ⁵⁶⁾ , 중계부조 2(스튜디오 1), 제작편집실 18, NPS마스터링 6, 주조정실 5(경인 포함), 색보정실 4, SMR 7, 입체음향실 1, 믹스다운실 3, KBS홀 1, KBS아트홀 1
	라디오	38	생방송스튜디오 10, 녹음스튜디오 26, 뉴스스튜디오 1, 주조정실 1
	중계차	10	TV 중계차 8(UHD 1, HD 7), R 중계차 2
	기타	1	멀티주조 1
소 계		115	
지역	TV	53	TV부조 9, 뉴스부조(주조) 18, 공개홀 17, 폴라일시스템 ⁵⁷⁾ 6, NPS 3
	라디오	67	제작부조 41, 녹음부조 11, R 통합주조 13, R 공개홀 2
	중계차	10	TV중계차 10
소 계		130	
합 계		245	

○ 송신시설

구 분	TV / FM / DMB		중단파	합 계
	기간국	간이국		
본 사	5	24	6	35
지 역	29	283	20	332
합 계	34	307	26	367

55) TS-1, 2, 3, 4, 5, 6, 7, 12, 13, 14, 15, A, C, D (스튜디오 단독 B, 21, 22, 23, 24, 26, 27)

56) 경인센터(TS-25) 포함

57) NPS, 디지털뉴스룸, APC, 부조정실 파일서버 기능이 통합된 지역(총)국 파일 기반 시스템

KBS 주요 계열사 현황

(2026. 7. 기준)

□ 자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공사지분	소재지	임직원수 (26.7.13기준)
KBS비즈니스	이재환	1989. 4. 1.	9억	KBS 100%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297
KBS미디어	최용훈	1991. 9. 1.	36.8억	KBS 86.2% e-KBS 10.8%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219
KBS아트비전	목훈	1991.10. 1.	5.2억	KBS 100%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 KBS별관	180
KBS시큐리티	김승욱	2011. 3. 1.	15억	KBS 100%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147
e-KBS	김덕원	2000.12.27.	416.4억	KBS 100%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4 KBS연구동	2
KGCS 문화산업 전문회사	안정문	2008. 4. 7.	100억	KBS 40% KBS미디어 35% N 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128	1

□ 자회사 출자회사 *자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계열사 지분	소재지	임직원수 (26.7.13기준)
KBS N	김성진	2001. 3. 8.	164억	e-KBS 74.0% KBS미디어 5.6% KBS비즈니스 3.1% KBS아트비전 3.8% KBS미디어텍 4.9%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186
KBS미디어텍	임동수	2009. 9. 1.	8억	e-KBS 100%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4	13
KBS AMERICA	장성주	2004. 7.15.	270만\$	KBS미디어 100%	미국 LA	18
KBS JAPAN	김형원	2005.10.19.	2.15억¥	KBS미디어 100%	일본 도쿄	18
몬스터유니온	지병현	2016. 6. 9.	25.7억	e-KBS 70.8% KBS미디어 19.5% KBS N 9.7%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15
KBS콘텐츠 특수목적회사	안정문	2015. 5.18.	0.1억	e-KBS 100%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1